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찬리안 하이텔 나무꾼/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보담당 김정선, 796-8364)
제 목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 주간 선포식 보도자료
날 짜 1996. 10. 19. (총 7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 주간 선포

일시 및 장소: 1996. 10. 19(토) 오후 2:00시, 서울역 광장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참여연대 공동대표, 전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10월 19일 노태우 비자금사건 발생 1주년을 맞아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 선포식을 갖고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을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으로 설정했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996년 1월 발족해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부정재산국민환수운동,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 눈> 개통, 공익제보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 선포는 지난 1년간 우리사회에서 진행된 반부패 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부패방지법 제정 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3. 당일 선포식에서는 1년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박계동(朴啓東) 전의원을 비롯 명진(조계종중앙분회 사회분과 위원장)스님, 김창국 본부장 등이 참석해 거리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부패방지법, 함께 알아봅시다"를 주제로 마당놀이가 진행되었다(별첨 1).

4.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 주간에는 삼풍유가족과 함께 하는 시민안전의 날, 사무노련과 함께 하는 샐러리맨의 날 등 각종 캠페인과 <내부고발자 보호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및 <부패추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사회의 선택> 국제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별첨 2).

- 별첨 1: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 선언문 및 일정
- 별첨 2: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 주요 일정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 선언문

우리사회를 허탈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져 나온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1년전 그때의 다짐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부패추방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1년간 우리사회는 얼마나 맑아졌는가? 우리사회구성원 모두는 부정부패의 오래된 뿌리를 뽑아내고 이땅에 성실이 온전히 열매맺는 옥토를 다시 일구기 위해 얼마나 힘을 모았는가? 혹시 1년전의 그 참담함은 이미 잊혀진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자신들을 향해 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다. 비자금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우리는 장학로 사건, 증권감독원 뇌물사건, 공정거래위 뇌물사건 등 수많은 권력형비리 사건을 지켜보아야 했다. 아직도 수많은 급행료와 촌지가 서민의 고달픈 일상을 더욱 옥죄는 현실 위에 우리는 그대로 서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납세자의 세금이 정경유착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용기있게 양심선언을 한 이들은 아직도 터무니 없는 공권력과 편견의 횡포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국민화합이라는 억지논리로 56공 대형비리주범들에게 8·15특별사면이 내려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지켜보아야 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낡은 부패의 시슬은 결코 단번에 끊어지는 일이 없으며, 시민의 접근을 봉쇄해온 오랜 성역은 결코 스스로 빗장을 여는 일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부정부패는 결코 미덥지 못한 집권자의 몇마디 정치적 선언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시종 정치권의 풍향에 좌지우지되는 검찰의 노력에 기대는 것도 허망한 일이다. 결국 시민의 일치된 의지와 결집된 힘만이 우리사회를 맑게 할 수 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오랜 독재체제의 유산이며 부정부패추방은 어느 한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속에서 제갈을 갈 수 있다. 맑은사회를 위한 시민의 자정행동, 성역의 빗장을 열어제끼는 시민의 적극적 발언과 개입만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세대에게 오랜 부실과 부패의 질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을 선포한다.

시민이 앞장서서 검은 돈을 추방하고 비자금을 근절하자.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양심선언자를 보호하자.

시민이 힘을 모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뒷돈없이 살수 없는 나라, 우리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내자.

1996년 10월 19일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1년에 즈음하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 주간 선포식

▶ 일시: 10월 19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서울역 광장

▶ 행사 일정

사회: 신광식(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풍물굿 공연: 부정부패 추방은 시민의 힘으로!

울력(전국민족극협의회 산하 놀이패)

제 1부

인사말

金昌國(참여연대 공동대표,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장)

격려사

명진(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 위원장)

연설: 부정부패추방은 시민의 힘으로

朴啓東(전 국민회의 국회의원)

연대사

沈迎達(삼풍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

마당놀이: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부패방지법, 함께 알아보시다

시민행동주간 선언문 낭독

沈昞浩(참여연대 시민고발단 단장)

제 2부 부패방지법 거리서명